



오세향 수녀입니다. 저는 1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해서 한약을 많이 먹었고, 가족들 안에서 저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불교를 믿었고, 저와 여동생은 대학 4학년 때 천주교신자가 되었습니다. 1984년, 대학 졸업 후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 재미있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가시간에는 명동성당에서 레지오 단원이자 청년회 회원으로서 환자방문·농촌봉사·목욕봉사 등을 했습니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 드린 후 예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수도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고난회 어느 신부님이 저에게 "씨튼 수녀회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고유한 모습의 수녀로 키운다."고 하신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985년 2월 16일, 12명의 동기들과 입회한 후 다함께 첫 서원을 해서 '12사도'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첫 서원 후 '씨튼 피정의 집'에서 범진옥 수녀·장미경 수녀와 함께 피정 사도직을 하면서 성소 담당자로 3년을 일했습니다. 1992년 2월 종신 서원을 마치고 모원에서 열린 전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해 3월 1일 인천교구 산하 소명여·중고를 위탁받아 초대교장으로, 8명 수녀님과 함께 학교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전교조 교사가 제일 많아서 교직원들 간의 알력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지혜와 필요한 은총을 주셔서 교사들도 안정감을 찾고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느라 밤 10시까지 자율 학습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교문 앞에서 인사하며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작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13년 재임 기간의 '작은 사랑'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기대 이상의 기쁨과 고마움,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관구장으로 수도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공동선을 위한 지향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관구장 임기를 마친 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무료로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어린이'는 자라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도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지역 씨튼동반회 1·2기 모임에 협조하고 여가시간에는 성북문화원에서 '행복한 시와 동화'를 읽으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Hello, I'm Sister Oh Sae Hyang. I was born the third daughter of one son and four daughters. Due to physical weakness, I had to take oriental medicine as a child, and my family was grateful for my survival. My parents were Buddhist. My younger sister and I became Catholic when we were seniors in college. In 1984,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 began a joyful career as an English teacher at a national middle and high school. In my spare time, as a member of the Legion of Mary and the Youth

Group of Myoung-dong Cathedral, I visited patients, volunteered to bathe the sick and elderly, and visited rural areas.

After sending my mother to heaven, with the heart of dedicating myself to Jesus, I sought a religious community. A Passionist priest introduced our community saying: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form each sister individuality through love and help her to develop her unique person. His words touched my heart.



Diocese of Incheon. I worked with eight other sisters.

This school was adamant on good management because so many teachers joined the union that there were many conflicts. However, the good Lord gave me the necessary grace and wisdom every moment, so the teachers found stability and settled down little by little. At that time, I shared 'a little love' with students who went home late at night after school, meaning greeting them and the teachers at the school gate for self-study until 10 pm to prepare for SAT. "A little love"



during my thirteen-year tenure was a tool of joy, gratitude, and peace for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Lord guided me and moved their hearts.

While serving as the provincial for ten years, I also met God, who gave me strength whenever I encountered challenges. I have had many experiences where the Lord listens to me and answers me when and how the Lord



wants, if I ask for the common good. After completing my tenure as a provincial and obtaining a counselor's license I provide free counseling to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poor.

"The child grateful to just be alive" (myself) grew up to be a religious, loving God, and is still learning to love. Currently, I help with the First and Second meetings of the Seton Companions in the Seoul area. In my spare time, I am delighted reading "Happy Poem and Fairy Tales" at the Seong Buk Culture Center. Thank you, Lord, for your grace!